



### 신미년 소망

## “새해엔 AIDS 예방에 관심을”



유 석 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건강의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한국건강관리협회에 대해 올해부터는 흔히 '20세기의 흑사병'으로 불리우고 있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예방에 대해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다.

지난 '81년 美國에서 첫 환자가 공식 보고된 이후 급속도로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AIDS는 지난 10월 말 현재 전 세계 환자수가 1백 58개국 29만 8천여명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약 1백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85년 12월 첫 감염자가 발견된 이래 지금까지 모두 1백 19명의 감염자가 생겼으며 환자 6명을 포함, 10명이 사망하고 1명이 이민을 가 현재 1백 8명(남자 94, 여자 14)이 보건 당국의 특별관리를 받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아직 AIDS에 대해 외국에서나 문제가 되고 있는 질병으로 무관심하게 여기고 있지만, 연도별 감염자 증가 추세(85년 1명, 86년 4명,

87년 9명, 88년 22명, 89년 37명, 90년 11월말 현재 46명)와 국내에서 내국인과의 성접촉에 의해 감염된 사람도 39명이나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건강관리협회와 같은 단체가 적극적인 예방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과거의 '해외 수입병'에서부터 지난 87년 이후에는 '내국인간 전파형'으로 바뀌고 있는 국내 AIDS감염 양상과 관련, 지난 89년 9월부터 6개월간 韓國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실태를 조사했던 미국 조지 워싱턴大 케이틀린 라이언 박사(女)가 “아직 AIDS가 사회적인 큰 문제로 부각되지 않고 환자의 수도 비교적 적은 韓國은 이 병과 관련된 정책 수행과 서어비스 활동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 병의 만연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건강관리협회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필자=연합통신 과학부기자〉